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년 4월 9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폐지조례안은

-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결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7년 서울시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도농상생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및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운영하였음.
- 하지만,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운영하면서 ▲자치구별 식재료 품질·가격 편차 ▲공급 품목의 다양성 부족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차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서울시는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22년 7월 ~ '23년 2월)하였으며, 용역결과 현행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됨.
- 서울시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2024년 1월부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개편된 공공급식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12월31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운영을 중단하였음. 이에 존속이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329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3. 7.~3.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